

		<b>보 도 자 료</b>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1년 2월 4일(목) 총 4매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담당 자	• 치매관리팀장 조명희 ☎440-2981 • 담당자 안선영 ☎440-2985	
<b>사진</b>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b>참고자료</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b>보 도 시 점</b>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 인천”**  
**인천시, 전국 최초 치매 가족을 위한 영화관 연다.**  
- 검진, 상담, 사례관리 등 치매통합관리 지속 전개 -  
- 치매친화 영화관, 초로기 치매환자 전담 쉼터, 휴머니티드 도입 -

- 인천시에 전국 최초로 치매친화 영화관이 운영되고, 공공요양기관에 인간존중 돌봄 기법이 도입된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정부의 제4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 ‘21~25)에 발맞춰 치매환자에 대한 인간 중심 돌봄의 가치를 확산 시키며 치매환자와 더불어 사는 인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 **광역치매센터 1곳, 치매안심센터 10곳**을 중심으로 치매 조기검진, 상담, 사례관리,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치매를 바라보는 의료적 접근의 관점을 치매환자와 가족 중심으로 바꿔 당사자들의 생각과 삶이 존중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 올해 신규 치매관리 중점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됐다.

▲치매친화 영화관, ▲ICT 활용 비대면 돌봄 사업, ▲산림 및 농림 치유 프로그램,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 ▲인간존중 돌봄 기법 휴머니티드 도입 등이다.

- 우선 오는 3월에는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가 인천미림극장에 문을 연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월 1회)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치매 진단으로 인해 문화·여가 생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 한다. 이와 함께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초로기 치매환자가 영화관 직원으로 활동하며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터도 제공한다.
- 초로기 치매환자(65세 미만 젊은 치매환자)는 **두뇌톡톡! 뇌건강학교**를 통해 전담 쉼터 이용이 가능하다. 뇌건강학교는 지난 2018년 마련된 뇌건강 커뮤니티 공간으로 북카페 및 뇌건강 체험관, 인지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작년 실시한 초로기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험과 서비스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로기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특화된 맞춤형 인지 재활과 사회활동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극복 선도단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초로기 치매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또 뇌건강 학교 내 스튜디오에서 치매 관련 유튜브를 제작해 치매 관련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 재가 치매환자의 치매관리와 코로나 시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중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 돌봄 매니저를 양성**하고 지원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 이밖에도 **인천대공원 산림치유센터와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우울랄라 힐링팜’**을 운영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에서 산림, 농림 등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예방과 관리, 가족의 스트레스와 돌봄 부담 경감을 돕는다.
- 또한 시는 선진돌봄기법인 **\*휴머니티드 케어**를 공공요양기관에 전수시키기 위한 트레이너 양성 과정을 프랑스 IGM본사와 국제업무협약을 맺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환자중심의 돌봄기술과 철학을 전수해 나갈 계획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 휴머니티드(Humanitude) : 프랑스어로 인간다움을 뜻하며, 치매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적인 케어보다 인간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돌봄기법(400여개 케어법 매뉴얼)

- 시는 만 60세 이상의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인지선별검사(CIST)를 실시하며, 치매가 의심되면 **무료로 신경심리검사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출장검진도** 시행할 예정이다.
- 치매관리 사업에 참여 희망 또는 문의는 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로 하면 된다.
- 아울러,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 치료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제2시립노인치매요양**

**병원의 치매전문병동(46병상) 증축**과 증가추세인 노인치매환자의 돌봄 및 관리를 위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부족했던 치매 관리 사업을 보완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겠다는 제4차 국가 계획과 발맞춰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Dementia Friendly Communities) 조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치매 극복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나비효과가 되어,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사진자료)인천시 뇌건강학교 등 관련